제26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개회식

본회의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6월 22일(월) 오후2시 개식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전명수)

(14시 01분 개식)

○**의사담당관 전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박래학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 박래학**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이후 메르스가 가져온 국가적 위기상황이 이제 한 달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은 함께 협력하여 메르스로부터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일상적인 삶과 생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6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대응에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고 6월 8일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여 메르스확산방지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장을 점검하고 의회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강구하는 등 메르스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시립병원,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서울시의사회 및 민간병원과 협력하여 메르스 검사와 진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메르스 노출에 불안해 하시는 시민과 자택 등에 격리된 분들을 위해 방역과 정보제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계와 불안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특별지원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메르스 집중 확산이 우려됐던 강남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을 결정하기도 하였으며 메르스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일선학교의 방역

과 학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메르스로 고통 받고 계시는 환자와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휴일도 없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메르스의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협조해 주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종전염병은 전 세계의 보건과제 중 하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메르스가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확대된 가장 큰 원인으로 초기 대처 미흡과 정확한 정보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유되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손실에 앞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간과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메르스와의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더욱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지금까지 투명하고 역량 있는 정책의회, 오로지 민생을 살피고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8대와 비교하여 의안 발의 및 처리 건수가 40% 이상 증가하였고 생활임금조례, 교육안전조례, 반값복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싱크홀안전대책 특별위원회와 항공기소음 특별위원회 등 시민 안전과 불편해소,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실화하고 세입ㆍ세출 구조를 개혁하여 서울시 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통해 의회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261회 정례회에서는 결산심사를 비롯하여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등 많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이니만큼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은 메르스에 대한 조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엄중한 때이니만큼 메르스확산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에서 메르스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곧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메르스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재난ㆍ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전명수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14분 폐식)

○출석의원(102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김경자 김구현 김광수(노원) 김광수(도봉)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선갑 김용석(도봉) 김용석(서초)
김영한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현기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도문열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마루 박성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중화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성백진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우창윤 우형찬
유광상 유동균 유용 유찬종
유청 이명희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종필 이창섭 이행자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웅식 최판술 최호정
한명희 황준환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정무부시장	임종석
행정1부시장	정효성
행정2부시장	이건기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복지건강본부장	강종필
도시재생본부장	이제원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이창학
행정국장	김의승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한강사업본부장	고홍석
재무국장	박재민
감사관	김기영
주택건축국장	진희선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평생교육정책관	한국영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서울메트로 사장	이정원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태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성규
SH공사 사장	변창흠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박현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성규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박백범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문철
의사담당관	전명수

○속기사

신경애 김철호